

프랑스 지역지리연구의 전개과정

孫明哲*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지역지리연구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주요 연구성과,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의 침체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국토공간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에서는 1871년 보불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지리학, 특히 지역지리연구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지리과목이 중시되고 대학에서는 지리학 강좌가 정식으로 개설되었으며, 특히 해외 식민지 개척을 위한 지역연구가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비달은 지표현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과학적인 지역연구를 수행하여 소르본 대학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지리학과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브뤼넬, 갈로와, 마르폰느 등 수많은 지리학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의 지역지리연구는 급속히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의 쇠퇴는 곧 지리학 전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지리학의 위기는 지리학 자체에 대한 실망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프랑스인들의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생겨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요어 : 지역지리, 비달학과, 통합연계학문, 식민지리, 지방지

1. 서론

19세기 이래 근대지리학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현상을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지역연구¹⁾로 부터 출발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간적 규모 — 대륙, 국가, 혹은 한 국가내의 소단위 지역 등 — 가 어떠하건, 지리학은 지표상에 분포하는 자연 및 인문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특정 지역이 지닌 고유한 성격을 밝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달(Paul Vidal de la Blache)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연구학풍을 형성하여 지리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수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하였다. 적어도 2차 대전 이전까지 프랑스의 지리학은 科學인 동시에 곧 藝術로서 학문사회내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실성있는 경험적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커다란 사회적 공헌과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계량혁명을 거

치면서, 오늘날 지리학은 더 이상 세상을 비춰 보는 窓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몇개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될 듯한 직업적 기능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Scagill, 1985). 지리학자들은 과학자의 格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압박감 때문에 정확성(exactness)과 진실(truth)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 지리학은 記述的 說明力을 다듬고 엄밀한 과학성과 더불어 의미있는 예술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Guelke, 1977; Hart, 1982; Taaffe, 1985). 전 세계적으로 계량혁명이 풍미하던 '60년대에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했던 지리학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세대가 바로 죽 한 그릇(이론적, 방법론적 도구)을 위해 知的인 장자상속권(장소와 지역연구)을 팔아버린 세대였다고 개탄하기도 한다(Abler, 1993)²⁾.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지역연구의 중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으며³⁾, 지리학계에서도 중요한 관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김상호, 1983; 류우익, 1986; 박영한, 1987;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지리전공) 전임강사

권혁재, 1994; 김종욱, 1994; 손명철, 1994)⁴⁾. 그러나 지리학계 내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연구와 관련한 논의가 대부분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구체적인 지역연구방법론이나 경험적 연구 성과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지역지리학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국토공간을 연구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인지를 가늠해 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특히 2차대전 이전 지역연구의 좋은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지역지리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지역지리연구를 소개하고 지역지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지리학 연구의 방향을 가늠하고, 학교 지리교육중 지지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명료하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적인 프랑스 지역지리학

1) 프랑스 근대지리학의 발달과 식민지역연구

현대 지리학은 哲學과 發達史 측면에서 프랑스 지리학과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으며, 특히 지역지리와 인문지리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말 이래 프랑스는 비달, 브뤼느(Jean Brunhes), 마르톤느(Emmanuel de Martonne), 솔리(André Cholley)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걸출한 지리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이들은 특유의 학문적 웅집력과 상호협동 연구를 통해 프랑스 지리학을 몇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였다(Church, 1951). 이들은 우선 人文學(특히 歷史學)과 自然科學(특히 地質學)의 統合連繫學問으로서 지리학의 위치를 학문사회내에 확고하게 정립하였으며, 프랑스내 각 대학을 비롯한 국가 최고교육과정에 지리학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성취에 힘입어 정부의 공공사업에 지리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지역지리, 인문지리, 그리고 자연지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들이 축적됨에 따라 地理學의 內的體系에 획기적인 發展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 일반국민들 사이에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普佛戰爭(1870-1871)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주요 맹주국임을 자처하던 프랑스는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참패하여 자국의 영토 일부를 상실하게 되자, 프랑스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특히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졌음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Graves, 1984). 프랑스 장교들 중에는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전쟁터에서 敵地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고급지휘관이나 참모들 역시 중대한 지리적 오류를 범하거나 지도를 誤讀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지리과목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 지리교육을 강화하고, 1872년부터는 르바쇠르(Emile Levasseur)를 대학원 과정인 프랑스대학(College de France)의 지리학과 교수로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지리학이 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쳐지게 되었으며, 행정대학(L'Ecole de Sciences Politique)에서도 지리학 강좌가 개설되는 등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로부터 지리학이 크게 호응을 얻게 되었다(최운식, 1978).

한편 이러한 국가적 危亂속에서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여 해외의 새로운 땅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보상받아 실추된 국가 위신과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식민지 개척 및 팽창정책과 당시 프랑스 각 지방에서 막 창설되기 시작한 많은 지리학회들의 역할이 서로 부합하여 지리학자들은 해외 식민지 개척을 위한 지역연구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Church, 1951). 결국 이와 같은 프랑스의 역사적 상황이 프랑스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주제별로 접근하는 系統的인 地理보다는 記述的인 地理(descriptive geography)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했으며, 이는 이전까지의 단순한 羅列式·百科事典式 地理(gazetteer geography)를 벗어난 진일보한 단계였다.

한편 1892년 소르본느(Sorbonne) 대학에 植民地理(colonial geography)강좌가 개설된 이래 릴(Lille), 보르도(Bordeaux), 리옹(Lyons), 낭시(Nancy), 렌느(Rennes) 대학 등에 연이어 이러한 강좌가 확산되면서, 특정 지역을 상세히 기술하는 地域地理가 점차 체계적인 연구들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Church, 1951).

2) 비달과 地域地理研究

1898년 소르본느 대학 지리학 교수에 취임한 비달은 그의 취임강연에서 상세한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역의 현재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 자연적·역사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 — 의 영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세한 지역연구로부터 일반연구와 비교연구의 종합이 가능하며 綜合을 통해서만 다양한 요인들의 인과관계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⁶⁾. 이와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그는 大作 『世界地理』(Géographie Universelle) 편찬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완벽한 世界地誌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비달의 주장에 따르면, 地理學은 人文科學뿐만 아니라 제반 自然科學들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지리학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Dickinson, 1969). 첫째, 지리학은 지표현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지표 제 현상의 유형들을 세계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고려한다. 둘째, 지리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표현상은 상이한 유형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조합된 것이거나 이들이 변모된 것이다. 셋째, 지리학은 이들 현상의 다양한 變異를 기술하고 설명하려 하며, 넷째, 지리학은 자연환경,

특히 기후와 식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하려 한다. 그러므로 지리학은 지표현상을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며, 또한 지리학은 지표환경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막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지리학의 특성에 비추어 그는 地理學은 곧 場所(place)에 대한 科學的 研究라고 결론지으면서, 아래와 같이 地理學의 學問的 特性을 규정하고 있다(Church, 1951):

지리학이 다른 학문으로부터 받아들인 지식을 상호 교환하면서 공동의 지식의 보고에 내용을 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통합된 자연을 분할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 규모가 지구적 환경에서건 혹은 좀더 한정된 지방적 환경에서건 사실들의 상호관련성이나 일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달의 지역연구방법은 철저한 야외관찰과 조사를 통한 현장중심의 연구였다. 그는 실내에서 문헌에만 의존하여 수행되는 지리학연구는 평범한 연구일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지리학자는 지도를 가지고 연구할 때 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훌륭한 지역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지표현장에서 현상들을 관찰하고 조사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면서도 강의를 통하여 항상 새로운 지리학(new geography)을 역설하였다(Buttimer, 1995). 비달이 말하는 새로운 지리학이란 과거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지리학이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맞춘 지리학이며, 그것은 곧 지역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려는 태도이며, 주어진 지역내에서 현상들이 어떻게 상호연계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환경과 인간과의 대화를 통하여 형성된 지역의 특성은 지역마다 지닌 고유한 개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보편성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비달의 관점은 실증주의적 관점과는 매우 다른 것이기도 하다(최기엽, 1983)⁷⁾.

한편 비달은 종래 지리학이 역사연구의 한 방편으로써 무기력한 위치에 있던 것을 새롭게

정립하면서도, 역사학과와 학문적 연계를 유지 하면서 자연적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세밀한 지역연구와 이의 출판을 장려하면서 monograph로 출간하거나, 자신이 창간한 학술지 『지리학연보』(Annales de Géographie)에 게재하였다. 그의 강력한 영향하에 수많은 대학의 지리학과에서 지역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地理學 本質에 대한 비달의 아이디어는 이후 그의 많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어 독특한 프랑스 지리학풍을 형성 하였는데, 이른바 비달학파의 지역지리연구가 그것이다.

3) 地域地理學의 繼承과 發展: 갈로와 (Lucien Gallois)와 마르톤느를 중심으로

비달의 뒤를 이어 소르본느 대학에 취임한 갈로와는 그의 스승 비달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이 지배하던 학문적 전통 속에서 대학교육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문예부흥기의 독일 지리학자들」(Les géographes allemands de la Renaissance, 1890)이라는 장대한 박사학위논문을 저술했으며, 이는 지리학사에 귀중한 공헌물로 알려져 있다. 그후 자연지리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지역과 지명: 파리지역에 관한 연구』(Régions naturelles et noms de pays: Etude sur la région parisienne, 1908)를 저술한 후 비달의 관심에 더욱 가깝게 다가갔다.

갈로와 역시 대부분의 프랑스 지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地域(region)에 대한 역사학적 지식과 자연지리적(physiography) 지식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그는 18세기 후반에 완성된 최초의 프랑스 지질도를 통해 '自然地域'(région naturelle)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으며, 지역을 지질학적 단위로 간주하고 지질특성에 따라 地名을 부여하였다. 갈로와는 '自然地域'의 이름은 그것이 크건 작건 그 자체가 자연질서(physical order)인 土地實體(land entities)에 근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 프랑스 지리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으며, 1차 대전 후에는 소르본느에서 전후 유라시아의 정치지리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마르톤느는 볼라시 死後부터 2차 대전 후까지 명실상부한 프랑스 지리학의 지도자였다. 1895년 역사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학박사(1902)와 이학박사(1907)를 받았다. 비달 이후 소르본느 대학 지리학 교수로 취임한 이래 1944년까지 재직하면서 <지리학연구소>를 개설하고, 양차대전 사이 국제지리학연맹(IGU)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전쟁 와중에는 회장을 역임하였다.

마르톤느는 처음부터 자연지리학을 전공하였으며, 그의 주요 관심지역은 중부 유럽이었다. 당시의 많은 지리학자들이 역사학에 대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지질학·지구물리학·생물학 분야에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쌓았다. 그의 최초 저작은 브리타니 지방의 해안지형을 다루고 있으며, 곧 이어 카르파티안 산지의 자연지리연구로 관심을 돌렸다. 그가 쓴 지방지는 『Wallachia』로 1902년 출간되었다. 그는 일생을 두고 알프스산지의 빙하 침식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비록 자연지리학자이면서도 하나의 연구 틀 속에서 자연과 인문 양 측면을 조화시키려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世界地理』 시리즈의 『프랑스 자연』(1942)편과 『중부유럽』(1930, 1931)편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4) 주요 地方誌(regional monograph)

비달, 갈로와, 그리고 마르톤느는 수많은 지방지, 특히 프랑스 지방에 대한 지방지를 저술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역사학의 영향하에 종속되어 있던 지리학을 독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역사학과 지리학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탁월한 地域的 綜合(regional synthesis)을 성취해냈다.

프랑스 지역연구물들이 즐겨 읽히는 이유는 폭넓은 시각과 유려한 문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 地理學은 科學이면서 동시

에 藝術이었다. 地域을 記述하면서도 科學的 分析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說明藝術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리적 저술들은 단순히 技術的인 專門用語의 집합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지역연구는 대학 교과과정의 규정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즉 대학 졸업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소지역에 대한 짚막하면서도 독창적인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거의 예외없이 방대한 분량의 지역 연구물이었다.

한편 프랑스의 지역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창립되기 시작한 각 지방의 지리학회들 통해 좀더 풍부하게 진행되었다. 보르도, 툴루즈(Toulouse), 마르세이유(Marseilles)(이상 1876년 학회창립, 1877년부터 학회지 발행), 툴롱(Toulon), 몽펠리에(Montpellier)(1878년 학회창립), 리옹(1873년 학회창립, 1875년부터 학회지 발행) 등 20여개 지방대학에 학회가 설립되어 소지역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같은 프랑스의 지역연구는 「世界地理」편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大作은 비달이 처음 시작하여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하였으며, 갈로와를 거쳐 마르톤느에 이르러 23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기에는 비달과 당시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잘 집약되어 있는데, 비달은 그 序文에서 '편협한 지방색을 넘어 대지와 인간 사이의 총체적 인과관계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저술된 주요 지방지를 살펴보면 드망종(Albert Demangeon)의 『삐까르디와 그 주변지역』(La Picardie et les région voisines, 1905), 블랑샤르(Raoul Blanchard)의 『플랑드르』(La Flandre: Etude Géographique de la Plaine Flamande en France, Belgique et Hollande, 1906), 갈로와의 『자연지역과 지명』(1908), 비달의 『동부 프랑스』(La France de l'Est, 1917), 소르(Maximilien Sorre)의 『지중해 연안 피레네 산맥』(Les Pyrénées méditerranéennes, 1913), 마르톤느의 『알프스 산맥』(Les Alpes, 1926), 보울리그(Henri Baulig)의 『중부고원』(Le Plateau

Central, 1928)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는 모두 프랑스 지리학을 지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 현대 프랑스 지리학에서의 지역지리연구

1) 지리학의 핵심영역으로서의 지역지리: 2차대전 이전

1940년대 말까지도 프랑스 지리학은 지역지리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당시 지리학은 어떤 개념적 준거에 적합한 지식이나 구조화된 개념에 의해 정의되는 분과학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지리학은 일반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된 훈련이나 야외조사를 통해 학습되는 분과로 이해되었다(Claval, 1984). 따라서 지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읽는 방법을 배우고 경관(주로 기복과 농업패턴)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며, 현지 주민의 생활방식에 대해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는 곧 '地理學者의 才能'(geographer's craft)이라 표현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지리학에 대한 이와같은 인식으로 말미암아 自然地理와 歷史地理는 地域地理라고 하는 핵심부 속에 용해되어 있었다(그림 1가).

이와같은 맥락에서 경제지리·정치지리 등 제 통분야는 지리적 지식의 필수분야로 인정되기 보다는 지리학 본질과는 별도의 단순한 응용분야로 간주되었다.

2) 지역지리학의 쇠퇴: 1950-60년대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지리학은 浮沈을 거듭해왔다. 양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학파는 풍부한 연구기반과 주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문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1945년 이후 경제침체 등 국내적 요인과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몇몇 유럽국가에서의 지리학 발전으로 프랑스 지리학은 과거의 명성에 손상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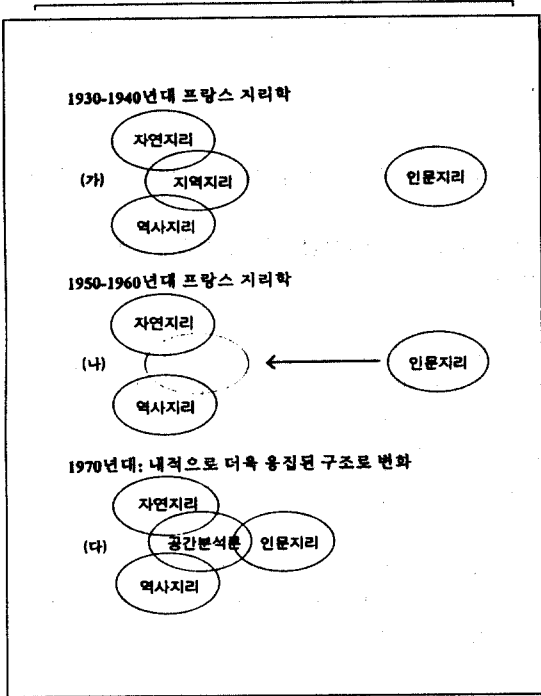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지리학에서 지역지리의 위상변화(Claval, 1984, p.20)

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다루어졌던 연구주제들이 해양학, 기상학, 인구학, 생태학 등 여타 계통분과로 전문화됨에 따라, 지리학자에게 주어졌던 여러 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격감하게 되고 연구활성화를 위한 물질적 조건이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맥락 속에서 프랑스 지역지리학은 1950년대 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60년대 말까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였다(Claval, 1984). 프랑스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의 쇠퇴는 곧 지리학 전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지리학의 위기는 지리학 자체에 대한 실망에서라기 보다는, 프랑스인의 생활이 현대화⁸⁾되면서 생겨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지리학의 방법론은 생산수단이 발달하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져서 形態와 機能 사이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근대화된 지역에서 보다, 주민의 생활이 단순하고 사회적 활동이 경관상

에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전근대적인 지역에 더욱 쉽게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지리 방법론은 20세기 초까지도 거의 변화를 겪지 않았던 프랑스 농촌지역연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와 프랑스 농촌은 급속히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와는 아주 색다른 경관을 나타내게 되고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제 더 이상 역사적 접근법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 지역지리학은 무력해지고⁹⁾ 세계는 더 이상 과거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현재의 기능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지역지리가 국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도 저개발 국가가 많은 열대지역에서는 지역지리 패러다임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지리학이 쇠퇴함에 따라 自然地理와 歴史地理가 분리·독립되고, 人文 및 自然 분야의 系統地理가 더욱 전문화되어 갔다. 전문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리학자는 동시에 지질학자, 광물학자, 기상학자가 되어야 했으며, 대학의 지리학과에는 지리학자보다는 자연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1968년 대폭적인 대학체제의 개편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양면을 동시에 전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전문화 추세는 가속되었고 自然地理와 人文地理의 유대는 멀어져 갔다. 자연지리와 역사지리를 연계해주던 지역지리학의 위치는 공백으로 남게 되고, 전문화로 치달리던 인문지리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주지 못하였다(그림 1 나).

3) 지역지리학의 再考와 공간분석론의 등장

지역지리학의 급속한 침체 속에서 솔리는 이를 재고할 것을 제안하였다(Claval, 1984). 그는 지역지리학을 보다 확고한 개념적 기반위에 세우고 당시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학술용어의 재정의의를 시도하면서 인간의 행태를 규정하고 공간을 구조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인문지리학의 기초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랑누(M.Le

Lannou) 역시 비달의 핵심적인 여러 개념들을 원용하여 지리학을 '거주자로서의 인간의 중심적 아이디어'로 재건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줄라드(Etienne Juillard)는 술리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개념정의를 넘어 지역지리학의 아이디어가 발달해 온 과정을 다시 추적하고 공간을 구조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작용력을 연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북부유럽 및 북아메리카와의 학문적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공간분석지리학이 프랑스 지리학연구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역지리학은 더욱더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프랑스 젊은 세대들은 대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캐나다 퀘벡에서의 유학생활동 등을 통해 英美계통의 지리학을 직접 접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통해 계량기법이 급속히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1930-40년대 지역지리학이 담당했던 지리학의 핵심적 역할을 공간조직론이 대신 수행하게 되면서, 이는 더 나아가 전문화되어 가던 인문지리학을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현대 프랑스 지리학의 주도적 패러다임을 이루게 되었다(그림 1 다). 이처럼 7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이 공간 분석론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하였으나, 거의 한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프랑스 지역지리연구는 수많은 중요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을 축적함으로써, 프랑스 지리학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19세기 말 이래 프랑스 근대 지리학의 출발은 곧 지역지리학으로서의 출발이었다. 1871년 보불전쟁에서 참패한 프랑스는 실추된 국가적 위신을 해외 식민지개척을 통하여 만회하고자 했으며, 이와같은 프랑스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이 프랑스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소지역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치중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달이 소르본느대학 지리학과에 취임한 이후, 연구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기술하려는

그의 아이디어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관련 타 분과학문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으면서 2차대전 이전까지 탁월한 패러다임으로 수용되어 왔다. 비달학파가 이룩한 과학으로서, 동시에 예술로서의 지리학(곧 지역지리학)은 1950년대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설명력을 잃고 지리학내에서 차지하던 독보적 지위를 공간분석 지리학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지리학은 20세기 전반부에 지역지리학이 축적해 놓은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가치있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프랑스에서의 지역지리연구가 출발단계에서는 해외 식민지 개척이라는 정치·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지표현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비달학파의 지역연구방법론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우리의 국토공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국토는 수천년 동안의 다양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상이한 공간적 층위들이 중층적으로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는 단순한 자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통치체제 속에서 생활해 온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정 시점, 특정 지역의 특정 현상만을 분리하여 연구하여서는 본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프랑스 지역지리연구를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 국토공간 가운데도 도시화·산업화가 크게 진전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지역지리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지역지리학은 그 동안 지리학자들이 지나치게 세분화, 전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지리학의 내적 통합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접학문에 더욱 가까워짐으로써 유발된 지리학의 正體性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의 地誌분야는 단순한 지리적 사실의 나열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학습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지리과목은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인식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지리학계에서 지역지리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여타 국가의 지역지리 연구방법 및 경험적 연구성과 등에 대해 좀더 많은 소개와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註

- 1) 이 글에서는 '지역연구' '지역(지리)연구' '지역지리(학)'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표상에 분포하는 자연 및 인문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특정 지역이 지닌 고유한 성격을 밝히려는 지리학 내의 연구흐름'들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의 여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지역연구(Area Studies)와는 의미상 다소 거리가 있다. (地域과 地域研究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김중욱(1994)을 참조할 것)
- 2) 에블러는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면서, 가장 먼저 지리학연구에서 場所와 地域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우선 계량혁명 이후 계통적 접근과 주제 중심의 연구가 강화되면서 지역연구와 지역지리가 대단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지역지리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으며 이는 전통지역지리와는 달리 탈근대적 사고를 수용함으로써 성 관계(gender relations), 정치권력, 그리고 사회구조에 뿌리를 둔 인과구조에 주목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매우 흥미있고 예리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연구가 현대 지리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3) 최근에는 지리학계 밖에서 오히려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술진흥재단이 매년 지역연구를 특별지원과제로 설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는 지역연구라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이다.
- 4) 지리학계에서도 한국지역지리학회이 구성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 10월 13-14 양일에 걸쳐 열린 대한지리학회 창립

- 5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는 수백명의 지리학자들이 모여 지역(지리)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 5) 이 글에서 말하는 '전통적 지역지리'란 세계 제2차대전 이전, 즉 지리학내에 실증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계량혁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의 지역지리를 통칭하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 지역지리'에 대비되는 '신지역지리'(new regional geography)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영어 사용권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 '재구성된 지역지리' 혹은 '신세대 지리'(Thrift, 1983, 1991), '변모된 지역지리'(Scargill, 1985), '부활된 신지역론'(Warf, 1989)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전통지역지리와 신지역지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손명철(1994, 1995)을 참조할 것).
- 6) 비달은 수많은 논문과 명저를 남겼으나, 그 중에서도 그의 사후 마르톤느가 편집·출간한 『人文地理學原理』(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1921)는 오늘날까지 전세계적으로 지리학의 고전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비달 서거 30주년인 1948년, 鄭 甲에 의해 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번역본이 과연 한국에서의 지리학연구, 혹은 지역지리연구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7) 이와같은 비달의 방법론적 개체론은 최근 신지역지리 논의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비달의 방법론적 진수는 특히 시간지리학과 구조화이론을 원용하는 신지역지리연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 8) 프랑스는 1936년에 이미 도시화율이 52%에 이르게 되고, 2차대전 이후에는 농촌지역이 급속하게 근대화되면서 역사적 접근법 위주의 지역지리연구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 9) 리글리(Wrigley, 1965)는 산업혁명 이후 현실 세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지역지리의 생명력도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농민, 농촌사회, 말(馬)과 함께 '지역'지리도 산업혁명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최운식 역, 1973, "지리학 사조의 변천," 지리학과 지리교육, 1, 7-9에서 재인용).

文 獻

권용우, 1984, 프랑스 지리학의 전개과정, **응용지리**, 7, 49-71.
 권혁재, 1994, 지역지리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대한지리학회보**, 41, 1-2.

- 김상호, 1983, 지리학의 본질, *지리학논총*, 10, 1-14.
- 김종욱,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연구와 지역교육, *지리교육논집*, 31, 1-15.
- 류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 *현대사회*, 24, 246-263.
- 류제현,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의 발달, *지리학논총*, 14, 345-358.
- 박영한,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현황과 방법의 모색, *지리학*, 35, 1-14.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 명보문화사.
- 손명철, 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 지방노동시장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뵈 비달 드 라 블라시/정갑(역), 1948, *人文地理學*, 研敎社(P. Vidal de la Blache, 1921,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Librairie Armand Colin).
- 최기엽, 1983, 근대지리학 이후의 반실증주의적 인식과 방법, *응용지리*, 6, 1-26.
- 최운식, 1978, 프랑스 지리학계 동향, *지리학*, 18, 46-51.
- Abler, R.F., 1993, Desiderata for geography: An institutional view from the United States, in Johnston, R.J.(ed.), *The Challenge for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215-238.
- Buttimer, A., 1971, *Society and Milieu in the French Geographical Tradition*, Rand McNally.
- Buttimer, A., 1995, Book reviews(on Sanguin, André-Louis, 1993, Vidal de La Blache:1845-1918 — Un Génie de la Géographie —, Paris: Editions Belin), *Annals of the A.A.G.*, 85(2), 406-408.
- Church, R.J.H., 1951, The French school of geography, in Taylor, G.(ed.), *Ge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Methuen, 70-90.
- Claval, P., 1976,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in France, *Progress in Geography*, 7, 235-292.
- Claval, P., 1984, France, in Johnston, R.J. and Claval, P.(eds.), *Geography Since the Second World War*, Croom Helm, 15-41.
- Claval, P., 1993, *Initiation à la géographie régionale*, Nathan.
- de la Blache, P.V., 1899, LeÇon d'ouverture du cours de géographie, *Annales de géographie*, 18, 97-109.
- de la Blache, P.V., 1905, *Tableau de la Géographie de la France*, Librairie Hachette et Compagnie.
- de la Blache, P.V., 1913, Des caractères distinctifs de la géographie, *Annales de géographie*, 22, 289-299.
- de la Blache, P.V., 1926, *Principles of Human Geography*, Henry Holt and Company.
- Desbarats, J.M., 1975, Contemporary trends in French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27(1), 7-14.
- Dickinson, R.E., 1969,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 Gallois, L., 1908, *Régions naturelles et noms de pays: étude sur la région parisienne*, Armand Colin.
- Graves, N.J., 1984, *Geography in Education*, 3rd Ed.,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Guelke, L., 1977, Regional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29(1), 1-7.
- Hart, J.F., 1982, The Highest Form of the Geographer's Art, *Annals of the A.A.G.*, 72(1), 1-29.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James, P.E., 1972, *All Possible World: A*

-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The Odyssey Press.
- McDonald, J.R., 1975, Current trends in French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27(1), 15-18.
- Scargill, D.I., 1985, Space, place and region: Towards a transformed regional geography, *Geography*, 70, 138-141.
- Taaffe, E.J., 1985, Comments on regional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84, 96-97.
- Thrift, N.J.,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23-57.
- Thrift, N.J., 1991,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4), 456-465.
- Warf, B., 1989,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10(2), 178-185.

The Evolution of Regional Geography in France

Son, Myoung-cheol*

Summary

Modern geography in France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was begun with regional geography. France after losing the Franco-Prussian war in 1871 had tried to regain the deteriorated national proudness through the colonial expansio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in France had encouraged French geographers to engage in detailed small area studies. In particular, after Blache became a faculty at Sorbonne University his idea on integrative rather than selective description on area studies had gained paradigmatic popularity not only in geography but in other disciplines. The regional geography tradition was then firmly established as a science and as an art by Vidalian school until the beginning of Second World War. However, whe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ere the dominant science since the 1950s spatial analytic geography has become popular research tradition replacing the previledged regional geography. Nevertheless, geography in France is still acknowledged as an interesting and valuable discipline since regional geography tradition had accumulated rich knowledges on various regions.

As regional geograph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nd helps to understand various world regions, it should be regenerated as a research tradition which are able to fulfill societal needs accruing nowadays. By doing this, geography can rectify its disciplinary identity which has been disintegrated internally by giving too much emphasis on specialties, and melding into nearby disciplines. Our geography education for the chorography in particular focuses mainly on the listings of simple geographic facts, in this regard. Rather than attracting students' concern and motivation, geography is considered as a subject oriented toward simply memorizing geographic facts. To overcome these problems, regional geography should be discussed openly and popularized in research. Regional geographic methods available and results produced in other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and critical assessments should be made for selective acknowledgment for nurturing our regional geography.

Key words: Regional geography, Vidalian school, Integrating subject, Colonial geography, Regional monograph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Major of Geography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